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
보도시점 2026. 5. 22.(금) 08:00 배포 2026. 5. 22.(금) 08:00

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,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

-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~2027년 수도권 9만호, 규제지역 6.6만호 공급
-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,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,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.22일(금) 09:00 정부서울청사에서 **부동산관계장관회의**를 주재하고, 「**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**」, 「**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**」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 : 부총리(주재), 금융위원장, 국토교통부 1차관, 국무2차장, 국세청장, 경찰청장

구윤철 부총리는 "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**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, 1~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**를 기대할 수 있다"고 언급하면서, **비아파트 공급**을 **확대하는 방안**을 **다각도로 검토**하고 있다고 밝혔다. 정부는 **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**할 수 있도록 **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**해, 2027년까지 2년간 **수도권에서 총 9만호**, 그 중 **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**할 계획이다. 또한, **모듈러공법** 적용 등으로 **공기를 단축**하고, **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**해 **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** 등을 추진한다.

한편, 구 부총리는 "**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**는 **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**"고 밝혔다. 최근 국세청은 **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**에 대해 **세무조사에 착수**한 바 있고, **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,630여개**에 대해서도 **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**하고 있다. 경찰청 역시 **집값 띄우기**, **재건축비리** 등 **부동산범죄**에 대해 **특별단속**을 실시하여 **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**하고, 그 중 **861명을 송치**했다.

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, "정부는 **국민의 주거안정**을 최우선에 두고, **추진중인 방안**들이 **신속하고 확실한 성과**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부동산관계장관회의>	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	책임자	과 장 백경원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주해인 (haein1216@korea.kr)
담당 부서 <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>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유리 (044-201-3317)
		담당자	사무관 유찬호 (chanhoyu@korea.kr)
담당 부서 <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>	국세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 오은정 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 양창호 (rainsong@korea.kr)
	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 안찬수 (02-3150-2626)
		담당자	경 감 장우성 (jwscoolj@naver.com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